# 대면(對面)특권

## (창21:1~21)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면 특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대면 특권(對面 特權)'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마다 다른 면이 있고 독특하신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장관들을 자주 만나주시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장관쯤 되면 수시로 대통령을 대면해서 국가 운영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주 만나주시는 편인데 정례적으로 장관들을 만나는 것이 1년에 4번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 뵌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큰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1년에 네 번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지적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들이 보고를 할 때 대면 보고와 서면 보고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들을 대면해서 보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각 분야에 수석 비서관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할 기회가 적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이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서면으로 보고되는 문서들에 파묻혀 산다고 해요. 하여간 대면 보고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옆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일종의 갈증이고 목마름인가 봅니다.
그러니 장관해도 우리와 별 차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는 것이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이웃집 아저씨가 저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는 것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슈가 됩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장 동건 씨 같은 스타 생각을 할 때에 장 동건 씨의 아내가 고 소영 씨인데, 고 소영 씨 입장에서 매일 장 동건 씨를 보면 장 동건 씨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설마 그 스타를 그렇게 대할까?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인 스타를 그렇게 대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면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지독하신 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자식의 약속을 주셨으면 늦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대충 한 30살쯤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벌써 45년 동안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드디어 75세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뒤로 25년 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삭이 나왔어요.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3살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늦지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큰 잔치를 베풀기 전에 사라가 웃고 난리가 났어요. 사라만 웃었겠습니까? 다 웃었겠죠.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는 자’ 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주 못돼먹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이삭이 3살이고 이스마엘이 17살입니다. 이 3살배기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거예요. 놀린다는 말에 괴롭힌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열 받았겠습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볼 때에 슬쩍 툭 차는 것 같기도 하고 꿀밤도 때리고 그랬던 모양이죠. 사라의 눈에 그게 들어오니까 어느 엄마가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의 아내인데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가서 냉혹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10절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앞선 1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내면서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누구였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이제 와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냉대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집안에 앞으로 풍파가 가득하게 생겼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냉혹하게 보이는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라의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를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차별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통해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시는 겁니다, 어머니 사라의 마음을 통해서.
이삭이 당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진 이해를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 사건을 놓고 복음을 풀어갑니다.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 또 계집종에서 낳은 자녀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 다시 또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녀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그 두 모자

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신 복보다 이삭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도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물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서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서 복음과 율법의 대치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부흥과 번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개입해서 구원해주시고 특별히 부족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겠다고 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못했다고 크게 섭섭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내가 도대체 약속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아니라고 해도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아요. 우선 창세기만 보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 쭉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태어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 외의 이방의 백성과의 차이가 무엇인가가 참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분명하게 자를 대고 금을 긋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대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씩 찾아낼 수 있느냐?
먼저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

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개입하셔서 돌보시는 광경을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19절에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함께 12장부터 쭉 훑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보시면 하갈이 16장에서 사라에게서 쫓김을 받아 나오는데 그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갈에게 전달하고,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뜻을 전달합니다.
18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이고 나머지는 두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을 하고 여호와를 대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계십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대면한 것은 천사들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바로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집안에 화를 내리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하신 것이 아니라 꿈에서 현몽하여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외 사람들, 심지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의 차이는 대면 특권이 허락되느냐 아니냐는 것으로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함께 계시는' 것도 당신을 대면하도록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고 언약의 백성 외의 이방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는 특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간에 내용상 차이가 없어요.

단지 하나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면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 특권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볼 때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당신을 대면하는 특권만 주시지 않은 채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구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약속의 자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속의 자녀다운 신분으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면 특권을 주시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한 번 뵈면 영광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첫눈에 반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뵈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대면하도록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면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리 장관들을 두 배, 세 배로 만나도 그 이유는 장관들이 하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뜻이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장관의 몫으로 주기 위해서 만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다 일 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해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대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얼굴을 일단 보여준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져라.'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일들이지, 나의 일을 지켜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갖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지를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권은 곧 뭘 말하느냐?
세상 것을 대면하지 못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억압이에요. 세상 것을 아무것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대면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 대면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

님밖에는 안 계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운신의 폭이 엄청 좁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활 쏘는 자로 기동성 있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손이 번성합니다. 뭘 더 바래요? 부흥하고 성공하고 나름대로 한 혈통을 이루어나갔으면 됐지.

그런데 약속의 자녀들에게 뭐가 문제냐?
이 땅에서는 내가 마음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약속의 자녀 하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이름으로 성공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걸 내가 대면 할 수 없고, 대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와 아닌 자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대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낳아서 잔치를 벌이고 웃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내 마음의 얼굴을 잡아끄는 이삭을 바쳐버리고 외면하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만을 대면하게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11절에서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데 주님을 본 사람은 많잖아요.
주님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빌라도도 그렇고.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는 자, 그리고 내게 마음을 주는 자라고 하십니다. 결국 마음을 주님께 드리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임금님 삼겠다고 다 마음을 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마음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세상을 외면하는 겁니다. 세상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다보면 세상 때문에 헝클어진 마음이 평강을 찾게 되고, 변함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인데, 언약의 자손을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내 마음의 관심이 폭포수처럼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받아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지금 대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했을 때 기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자녀들과 언약 외의 자녀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대면 특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돈 많이 벌고 재벌 되고 살아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도 대통령까지 되고 삽니다. 별의 별 성공을 다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안 되어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세상을 외면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안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사업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자식 기르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 그것은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언약 외의 자손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을 허락받은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외면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외면하는 자들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왜 외면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을 외면하는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손입니다.
한 번 자신에게 확인해보시죠.
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받아들이고, 안 되면서도 끙끙거리고 있는지… 그러면 약속의 자손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통하듯이 원활한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 대면 보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대면 특권 하나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언약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차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유일한 차이인 특권을 결코 낭비하거나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